부처님과 보살의 탄생 힐링 음악으로 찬탄

'자비송' 가수 이미 우이
'불교기념일 성가집' 발매
해석 담긴 해설집도 수록

부처님과 보살의 탄생과 기념일을 찬탄한 명상 음반이 나왔다.

명상음악 전문 제작사인 콘텐츠코리아(대표 신효철)는 '자비송' 가수로 유명한 불자 뮤지션 이미 우이(Imee Ooi)의 신보 '불교기념일 성가집'을 발매했다.

이미 우이는 말레이지아 태생의 화교계 불자 뮤지션으로 한국불자들에게는 '자비송'이라는 챈트로 익숙하다.

그는 불교전통의 경전, 만트라, 다라니 등을 가사로 작곡과 편곡을 하는 작곡가 겸 편곡자, 가수이자 뮤직 프로듀서로서 중화권과 세계 불교명상음악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 뉴 스트레이츠 타임즈(New Straits Times)는 "이미 우이는 불교의 챈트를 현대화하여 만트라를 음악의 반열에 올려 놓았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미 우이는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베트어, 북경어, 광동어, 영어 등의 7개 국어로 노래를 하는데, 지금까지 '자비송', '금강경', '대비주', '옴 마니 반메 훔', '범음 반야바라밀다심경', '보석경' 등 50장 이상의 음반을 발표했다. 베스트셀러인 '자비송' 한국 음반에는 정목 스님이 우리말로 낭송한 '자비송'이 특별히 수록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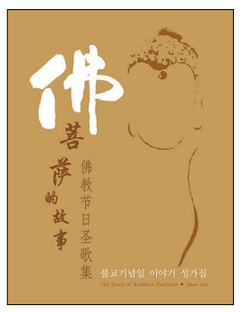
이미 우이의 신보 '불교기념일 성가집'에는 불교의 5대 명절 중 부처님의 탄생, 성도, 열반과 우란분절 이야기에서부터 미륵불, 약사여래불, 아미타불,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위타보살의 탄생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번 음반에는 이미 우이가 작곡 및 편곡,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했으며 사륜이 가사를 붙였다. 한국 발매 음반에는 중국어 원문가사에 한글독음과 해석, 수록곡별 해설이 특별히 삽입돼 있다.

이미 우이는 "이번 앨범을 통해 불교기념일이 가지는 의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불교예술이 더욱 대중들에게 다가가 '생활 속의 불교'가 안착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구입문의: 1661-3164, 010-5415-1798

신성민 기자

세계적인 불교뮤지션 이미 우이(사진 왼쪽)와 그녀의 신보 '불교기념일 성가집'(사진 오른쪽).

'靜中動' 미학 담긴 동양화 만나다

韓·中문화교류협, 김창배·이란 화백 초청 전시회


김창배


이란

20~26일 인사동 한국미술관서
韓선묵화·中공필화 만나는 자리
청 황실 전승 공필화, 처음 소개
1백 작품 전시, "韓中 교류 기대"

한국의 선묵화와 중국의 공필화를 한 자리에서 만나는 전시회가 마련된다.

한·중문화교류진흥협회(회장 하태규)는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제6회 한중문화교류전의 일환으로 한국 선묵화 대가 단원 김창배 화백과 중국 공필화 작가 이란 화백 초청 전시회를 연다.

김창배 화백은 근현대 인물 풍속화의 대가였던 故 금추 이남호 선생의 수제자로, 조선의 대표적인 화원인 단원 김홍도의 직계 후손이다. "차와 선(禪), 그림은 하나"라고 주장하는 김 화백은 한국 선묵화의 대표 작가로도 정평 나있다. 실제 그는 한국미술협회 선묵화 분과 위원장이며, 선묵화법과 기법에 대한 다수의 저서도 발간한 바 있다.

김 화백은 이번 초대전을 위해 3년을 준비했으며, 새로운 작품을 포함해 약 5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그의 작품은 매우 정적이다. 차회를 갖는 스님과 재가자부터 참선을 하는 수행자, 다소곳이 앉아 수담(手談: 바둑)을 나누는 모습이 산수와 어울리며, 선적 풍취를 자아낸다.

김 화백은 "'다선일여(茶禪一如)'라고 하듯이 평소 차와 그림, 불교에 빠져 산다"면서 "작품활동도 이런 생활 안에서 이뤄진다"고 밝혔다.

중국 작가로 초대된 이란 화백은 혈연으로 전승되는 중국 청 황실의 공필화를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작가다. 북종화 계열의 공필화는 일종의 세밀화로 중국 화단에도 이를 그릴 수 있는 화가는 7명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같은 공필화가 한국에 소개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이 화백은 궁정화파의 전승 제자로 처음부터 청나라 황실 궁정 말 그림을 깊이 연구하고 있다. 그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청 황실 말 그림 50여 점을 전시한다.

이 화백의 작품은 매우 동적이다. 놀라울 정도로 말이 세밀히 묘사돼 있으며, 동작들 역시 생동감이 넘친다. 또한 화폭 안에서 뛰노는 말과 어우러진 산수(山水)도 매우 조화롭다.


중국 공필화가 이란 작가의 작품 '금과철마'. 말에 대한 세밀한 묘사가 눈길을 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선묵화가 중 한 명인 단원 김창배 화백의 '육바라밀 삼취정계'.

이 화백은 "궁정 회화는 중국 전통문화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며, 독특한 예술적 품격과 매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궁정화파의 전승 제자로 처음부터 청 황실 궁정 말 그림의 창작에 매료됐다. 한국인들이 궁정화파의 작품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를 주최한 하태규 한중문화교류진흥협회장은 지속적인 한중 작가 초대전을 통해 양국 교류에 가교 역할을 할 뜻을 내비쳤다.

하 회장은 "교류 전시회는 민간 교류를 통해 한국과 중국 양국의 상호 이해도를 넓히고, 나아가 경제교류를 활성화 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서 "한국과 중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예술을 함께 느끼고 상호 우의를 다지며 서로를 더 이해하는 유익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02)720-1161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천년고도 경주, 고려시대 모습은 어땠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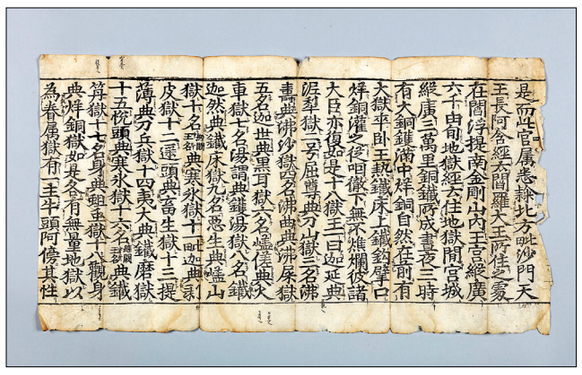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
'고려시대의 경주' 개최

왕경서 도시로 재편 모습
다양한 유물 전시로 고찰
경주, 고려 모습 첫 조명

신라의 왕경이었던 천년고도 경주의 고려시대 모습을 조명하는 전시회가 열린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유병하)은 오는 9월 4일까지 특별전 '고려시대의 경주'를 개최한다. 신라의 천년왕도로 주목받는 경주의 고려시대를 조망하는 전시가 단독으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 '경주'라는 이름은 고려시대에 시작돼 오늘에 이른다. 이번 전시는 신라가 멸망한 935년부터 1392년까지 고려시대 경주 지역 사회의 변화와 지역민들의 삶을 '도시경관'과 '지역사회'라는 키워드로 풀어냈다.



동경 굴석사가 새겨진 쇠북(사진 왼쪽)과 고려시대 사용된 구결이 있는 기림사의 자비도량참법(사진 오른쪽). 고려시대의 경주 모습을 알 수 있는 유물들이다.

불국사 석가탑 중수기(국보 126호) 등 국보 3점, 보물 15점을 비롯해 모두 500여점의 문화재를 △프롤로그:경주의 탄생 △1부 읍성과 지역사회 운영 △2부 호국의 상징 황룡사 △3부 지역사회와 불교사원 △4부 동족사회와 무덤 △5부 경주사람들 △에필로그:고려의 동경 경주 등의 주제로 나눠 구성했다.

프롤로그에서는 경순왕의 고려 귀순으로 경주가 신라 왕경에서 고려의 지역도시로 재편되는 과정을 다루며, 1부 '읍성과 지역사회 운영'에서는 고려시대 경주의 행정 중심이 된 읍성과 지역사회 운영의 모습을 전시한다. 성벽 축조에 사용된 신라 건축물의 석재들과 고려 기와들, '동경굴석사(東京屈石寺)'가 새겨진 굴불사 출토 쇠북은 1183년 경주의 전 호장 이백유(李伯兪)와 승려 도인(道人)이 제작에 참여했고 경주를 동경으로 칭했음을 보여준다.

2부 '호국의 상징 황룡사'에서는 신라의 중심 사찰이었던 황룡사가 고려시대도 경주민의 정신적 중심으로서 여전히 호국의 상징이었음을 새롭게 조명한다. 각종 대형 기와들과 청자 등 고려시대 황룡사 출토품들은 웅장했던 당시의 모습을 짐작케 해 준다.

3부 '지역사회와 불교사원'은 경주의 불교사원이 종교 뿐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중심지였음을 보여준다.

4부 '동족사회와 무덤'에서는 경주의 고려시대 무덤군을 통해 동족집단의 무덤을 살피며, 5부 '경주사람들'에서는 이제현·김부식·이의민 등 경주와 관련된 인물들을 소개한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기림사 소장 〈자비도량참법〉에서 발견된 13세기 고려시대 구결과 최근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경주 읍성 및 구정동 고려무덤 출토품을 이번 전시에서 공개한다.

이밖에도 효자의 마을로 선양한 황남동 소재 손시양 효행정려비 일명 효자리비(孝子里碑, 보물 68호)의 입체탁본, 고려시대 경주 역사를 집성한 역사 연표와 지도, 영상과 삽화가 전시 이해를 돕는다. 관람은 무료. (054)740-7530 신성민 기자

청동주조 50년 외길 인생
大韓民國 청동明匠
天鐘社
청동불상, 범종, 청동탱화, 단청, 순금불사, 조형물조각

홍법사 삼존불

수종사 범종

천종사 대표 송창일 명장
불교미술대전 조각부 특선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제전 조각부 특선
서울올림픽기원 불교미술대제전 입선
대한민국청소년 민족문화예술대전
불교조형미술 대상 수상
신지식인 협회장상 수상
한민족 대상 수상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내선길 103-79
대표전화 031)763-7435

건강 약선 음식 전문점
곽가네 음식 통인동 통인시장 내
건강이 불편하신 불자님들을 위한 건강음식입니다.
불연으로 만난 건강음식을 함께 나누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27년 전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고 종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단양 구인사에서 4박 5일 동안 지극정성 기도를 하게 되었고 아련한 꿈속에서 천태종 종조이신 상월 원각 대조사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던 것은 그 당시 상월 원각 대조사님께서는 열반하신지 10여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전에 한번도 뵌 적이 없던 조사님께서 제 기도에 감응하셨는지 나타나시어 저에게 건강을 치유하라며 식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음식법을 알려주셨고 그 음식 조리법으로 식생활을 바꾸니 점차 건강이 회복되고 일상 생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이 조리법을 널리 알리겠다는 마음으로 7년전 부터 곽가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건강상태는 젊은 사람 못지 않은 상태입니다. 모든 불자여러분이 편하게 언제든지 접하실 수 있는 음식입니다. 특히 건강이 불편하신 불자님들께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발원하옵니다. 인사드립니다.


사찰음식 70% 일반음식 30%
◆불가음식 : 인삼견과류탕, 더덕견과류탕, 연근견과류탕, 우엉견과류탕, 버섯견과류탕
◆건강약선음식 : 정식A, 정식B, 정식C / 선식떡국, 선식냉모밀, 선식온국수, 선식냉국수, 견과류 누룽지탕 ◆ 일반음식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6길 8 (통인시장 내) 곽가네음식
02)737-7949 / 곽정순 011-9762-7949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